

어린이 불장난에 의한
共同住宅 火災

1978. 3. 20

— 20分間の 작은 火災에
어린이 2名 窒息死 —

死亡 2名, 負傷 2名, 財産被害 3百 拾萬원 (動産不包含)



居室의 罹災狀態

● 一般事項

建物用途：共同住宅

所在地：서울特別市 永登浦區

火災日時：1978. 3. 20, 23:15~23:50

發火位置：B棟 9層 2號 부엌방

火災原因：불장난

● 建物概要

1974年 12월에 H住宅(株)이 12層 아파트 4棟 360家口를 建築, 分讓한 것 중 B棟 9層에 位置한 面積 132m²型의 1家口,

●火災狀況

1978年 3月 21日, 23:15時頃 H맨션 아파트 9層 2號의 부엌방에서 어린이(家口 主의 長男, 11세)가 촛불로 學校 宿題인 工作物을 만들다가 인접 可燃物에 引火되어 불이 나자 당황하여 안방에서 잠자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고 불길이 커져 순식간에 부엌방과 부엌 天井쪽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불길이 부엌 쪽으로 번진 후에야 어린이의 어머니가 매캐한 煙氣 냄새를 맡고 잠이 깨어 거실에 나와보니 長男이 불난 곳에 물을 끼얹고 있어 당황하여 3女(3세)만 안고 계단으로 待避, 불난 사실을 고함으로 외쳤다.

한편 自動火災探知設備가 設置되어 있었으나 作動되지 않았고 火災가 난 家口의 바로 위층인 10層 2號에서 이 매점 화장실에서 煙氣가 나 火災가 난 것으로 直感하고 警備室에 알려 警備室에서 消防署에 火災 申告를 함과 동시에 전체 아파트에 放送으로 火災 發生을 알려 아파트 入住者 全員이 非常階段으로 待避하였다.

어린이의 어머니가 집안에 남은 자매를 구하려고 出入門을 다시 열었을 때는 집안이 煙氣와 불길로 가득차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다행히 이 아파트는 家口別 防火區劃이 잘 되어 있어 다른 家口로 번지지 않았고 申告 즉시 消防隊가 도착하여 高架사다리차 等 7臺의 消防車로 鎮火作業을 한 끝에 23:50時頃에 鎮火되었다.

이 불로 工夫방에서 자고 있던 長女(10세), 次女(8세)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煙氣에 窒息하여 숨지고 불을 낸 長男은 12層 階段까지 待避하였으나 煙氣에 窒息, 重傷이며 어린이의 어머니도 火傷을 입었다.

●被害狀況

人命被害: 死亡 2名
 負傷 2名
財產被害: 3百 拾萬원(動産 不包含)
 (아파트 1家口 132m²中 82.5m² 燒失)

●問題點

1. 火災에 對備한 鎮火 및 待避 訓練 不足.
2. 카펫 等 有毒가스를 發生케 하는 可燃性 物質에 防災處理를 하지 않았음.
3. 自動火災探知設備 施設 狀態 不良으로 火災時 作動 안됨.